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5월 4일 (월) 제712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 김정희 주간 변혜숙 편집감독 김경희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산리 산 89

양 배움터 공동연대투쟁으로 나서야

양 총학간 민주적 합의 도출·역량배가 계기될 듯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

지금시기 재단부정은 서울배움터의 총파업과 용인의 적극행동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 주 재단부지사과를 계기로 전환학적 국면을 맞게했다.

재단부쟁이 학생들이 문제제기보다는 재단 내부분열로 시작된 투쟁이었기에 예초 학생들의 준비정도는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이사장과 손을 잡고 '박수준 물의비기'를 중심으로 투쟁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함께한 3.30선언이 발표된지 이틀만에 저작권과 이사장의 '백신 행위'는 오히려 재단원 완전한 개혁을 위한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투쟁은 '재단이사장권 원회전'의 구호로 내걸며 마침내 비판된 것이다. 거기다 용인배움터도 현재 재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교수와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어느 대학이건 교수와 직원이 재단부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고용원 입면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이 재단에게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용원의 박죽, 주체론과 반제단내용의 성명발표 등은 학생들의 투쟁을 통해 대체가 반제단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배움터 학생회가 적절한 시기에 발빠른 대응을 했던 것이 지도부의 난관적인 상황을 일구었는 평가는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회의 투쟁은 정점에 달한 것은 2주전 총파업로 결집된 서울의 총파업이었다. 75%의 투표율과 80%에 달하는 임도적지지로, 가장 높은 단계의 투쟁이라 일컬어지는 총파업은 성사되었고 증강교사기강이라는 난제도 잘 극복하는 듯 보였다.

지난 몇주간 드러났던 문제점

총파업기간 동안 학생회는 어느때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학생회의 오류가 '돌보미' 시기로 총파업기 간이었다. 즉 총파업과 재단부정은 특별감사 기간동안 교부의 압력을 줄이는 의도였으나 총파업답게 이끌어간 학생회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높은 지지속에 성시화된 사실을 증명하듯 이번 총파업기간에는 학생들의 자발



없다는 결론이다.

당장 현재 우리학교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부감사의 경우를 봐도 그렇하다. 학생들의 투쟁과 이를 통한 사회여론화사업 없이는 감사는 결코 칠성하게 이행될 수 없다(본보 71호 참조). 98년에 교육부종합감사를 받았던 덕성여대가 학교공사시의 수의계약 등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고경조치 등 미약한 처리를 받은 반면 98년에는 비리재단과 이를 시정시키지 못하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이사장인 박수준을 승인취소한 것이 기우가 시작된다.

공동투쟁으로 타세력 견해화

재단부정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재단재단의 전횡을 보장하고 있는 법·제도적계책을 넘어 외대의 재단이 재단본연의 역할을 하게 함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이다.

한국사회 대학교육의 현실 고려해야

이제도 박아사와 대학 무조건적인 적개심은 있으나 이사장의 '남친'은 말 그대로 배반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서의 사립재단의 한계라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시각화보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원인 중 하나를 밝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새로운 내용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증강교사를 거부하면 방송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재단아이가 전원퇴진되며 관선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는지, 다른 이사들은 승인취소되고 이사장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외에도 많은 것을 예상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후 방향들에 대한 예시가 없었던 것이다.

서울과 달리 용인의 경우 재단문제 발생초기부터 내부로운 진행방법으로 규정하면서 입장교령을 신증해 학생을 사이에 끌어온 학생들은 손을 잡는 것이 이사장을 유지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정의 재단아수에게서도 양 배움터의 공동부쟁이 잘 진행된 적이 드물었듯 이번에도 양배움터간의 공동부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재단의 분열전략으로 양 배움터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의 학교방법안에 협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양 배움터의 공동부쟁은 그간 서로에 대해 쌓았던 불신을 해소할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진방안을 도출해 낼 눈의기구의 출범 가능도 조금은 열어 놓을 것이다. 물론 양 배움터 간의 의사도 아울러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각자기 모은 폐리를 극복할 수도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재단아수들은 외래방법을 위한 것이지 서울이나 용인배움터 단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야기 될 수 있다. 물론 학생회의 출범이란 공간문제 등 시급히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한 양 배움터의 논의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불어 충분한 것은 바로 양 배움터간의 논의, 학교기구의 건설이다.

이번주는 톨길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성과점을 계승하고 재단개혁의 방향에 대한 힘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힘이다.

박운정 기자



하나는 승리다

▲ '적에게는 형(形)을 보이게 하고 나는 형(形)이 없으면, 곧 나는 오로지 할 수 있고 적은 나뉘게 된다. 나는 오로지하여 나누기 되고 적은 나뉘어져 100이된다. 이것이 10으로써 1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전쟁체계를 집대성한 손자병법의 하설(臥説)편에 있는 이 전략은 군군의 힘을 하나로 집중시키기 상대의 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상대를 크게 오그라 한 후으로 물어놓고 치면 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재단부쟁이 있어서도 많은 교훈을 준다.

▲ 어떤 싸움은 많은 수가 단결해 결사하는 힘과 격차를 벼리는 힘이 이긴다. 우리는 지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나? 결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한재의 힘을 하나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단부쟁의 가장 주요한 동력은 학생동력, 즉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가 100의 힘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7천 학생을 책임지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용인배움터 학생회의 이론과 요구를 감안하지 못하고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서울배움터의 투쟁방식을 불신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용인 공동연대투쟁은 아직 뜨뜻한 성과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이상후미로 조장되어온 양 배움터 간의 불신과 오해, 대외의 경기적인 발전성이 대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연대투쟁의 성과를 가로막는 합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양 배움터 총학생회가 공동연대투쟁의 의지만 공히 가지고 있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다.

▲ 이 시기 공동연대투쟁을 해야하는 이유는 재단문제가 외래의 미래를 달리하는 서울, 용인 공동연대이고 우리의 힘을 배가시켜 투쟁의 승리로 이를 수 있다는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다.

용인배움터가 재단부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 한 상황에서 공동연대투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서울, 용인은 서로 다른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형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되어 상대로부터 억울한待遇를 당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공동연대투쟁은 상황에 따른 선택일 수 없다. 이기는 싸움이 되기 위한 기본이 필수인 것이다.

김정희

지면 안내

조규철 교수 헌문 분석

…… 3면

조규철 교수와 서재명교수의 대립구도의 헌장을 본다.

2주동안 중파업, 학생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6면

영어과 8명의 집행부, 800명 담당. 일당 백이 따로 없네.

민족민 대북문제 국제 격기 방침

…… 8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26일에는 전국총학생회회장과 결거령까지 내렸다.

이런 상태로 나라를 계속 이끌다가는 차신에게 아직 규정과 결거령이자 내리지 않는 않을지...

다~아 잡혀갑시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내부적 위기가 오면 전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일본의 임진왜란도 그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대중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자자율이 4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실업자수는 2백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권은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은 공안국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철거촌에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고 전국총학생회장단 검거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다~아 잡혀갑시다!

더이상 잡아 갈 더이상 짓자를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과연 이 정권은 무엇으로 위기를 모면할지...

자! 우리 한번 다~아 잡혀 가 봅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 중과 함께 열린 공간 추구하는 '콜로키움'

흥미로운 생활문화 연구로 지역학에 접근한다

지역 학연단체인 '역사문화연구소'와 '세계역사문화연구회'는 서로 긴밀한 연대와 협력 아래 매년 10월 치러온 콜로키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역학 중심에서도 생활문화연구회를 표방하고 있는 이들 단체의 대표 김태정(사회학과 교수,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태정(일반아과 교수, 세계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교수수를 만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학원시장개방'으로 국내의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성을 살린 경쟁력을 갖춘 대학교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암울한 현실이 되었다. 이때는 24개 외국의 대학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달리 효과적으로 각 지역의 문화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지역학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부진한데, 이런 상황에서 보기 드물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사문화연구소'와 '세계역사문화연구회'이다. 이 단체들은 지역학 중에서도 역사문화연구, 생활문화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태정 교수는 '정치와 경제, 통상과 관련된 지역학 연구는 많이 있어 왔지만 정치 이런 분야의 근본이 되는 지역문화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간의 지역학 연구가 편중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을 지적한다. 문화를 연구하는 이유도 이러한 지역학 연구의 편중성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연구에서 생활문화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 '문화는 가지들과 행동양식의 바탕이며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첫 품과 생활문화의 연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계역

사문화연구회 회장 김태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세계역사문화연구회는 지역별 식습관 문화와 종교와의, 각도시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했고, 역사문화연구소는 역사와 숲문화, 생활문화와 지역연구에 관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선 등장 10여 차례의 정기적인 콜로키움을 열고 있는 것은 두 연구단체의 끊임없는 성과다. 이에 대해 김태정 교수는 '근거하기 쉬운 주제를 중심으로 열리는 우리의 콜로키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그동안 학부생들, 타 대학 교수들,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도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거짓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확넓은 참여는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김 교수는 생각한다.

이렇듯 열심히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연구비, 부족, 자료, 부족 등의 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연구비의 경우 학교의 공식적인 연구소가 아닌 이상 연구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로 대두된다. 공식적 연구소인 역사문화연구소는만 1년에 40만원의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으로는 두 단체가 연계하여 1년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는 두 단체의 회원들이 합심해서 내는 회비로 주요 연구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원업체(스폰서)를 알아보거나 특별회원, 후원생 후원자를 모으는 등의 자

금마련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계도 최근 그간 여러 성과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등이 그들은 이러한 학교당국의 지원이 학내 여러 연구단체들에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 '실용적'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자료의 부족인데, 우리하고 도서관에 있는 자

료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문학에 대한 것이다. 이

는 지역학에 대한 자료도 종종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문화연구소'와 '세계역사문화연구회'

는 접두어로 삼은 생활문화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지역학에 접근한다. 특히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김경신 기자

총파업 기간 자주강좌... 참여저조 아쉬워



총파업기간에 학원자주강좌에 걸맞는 자주강좌가 열렸다.
그러나 좋은 위치와 풍부한 내용으로 불구하고 강사와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던 '포스트모더니즘은 없다'의 저자 송주상씨의 강연 정면

다양한 행사가 열린 이번 총파업기간에는 여러 쪽으로 강좌들이 선보였다. 이번 강좌는 수업거부로 인한 수업공백을 메꾸어 주는 동시에 학원자주화 부정하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과목의 주제와 강사, 강의방식을 선택해서 민족이나는 자주강좌 성격을 가지고 그 실상을 기능해 보았다.

강좌를 준비한 서명에 올터 축학회 교육국장 조대연(사회·신방 4군)은 "급박한 상황으로 준비와 교과수고에 부족하였지만 지금 시기 이

점으로 수행해야 할 방향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선보인 강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과 대학문화의 방향'을 주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없다'의 저자인 송주상씨의 강좌, 성균관대 강교연 최규진씨의 '한국노동운동', 민교협 교육위원회인 강원대 사회과 강치원 교수의 '내학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영화 다 시보기'로 주제로 된 '정의와 인생'의 김홍준 감독의 강좌 등이다. 특히 관심을 많이 끌었

이지연 기자

방북취재 성사를 위한 전대기련 공동광고

동여 맨 사슬을 끊고 이젠 포효해야 합니다

갈라진 한반도, 50년이 넘었습니다.
봉단은 이 땅위에 너무나 많은 고통은 얹혀 놓았습니다.
헤어진 가족, 민족에 대한 적개심, 엄청난 방위비 부담...
이제는 떨쳐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정식된 경제는 남북경제협력으로 그 출구를 찾고
평화적인 군사무장축소로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50여년 헤어진 가족이 상봉하여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렇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두기 위해
전국대학신문기자들은 방북취재를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의 지름길을 찾아나온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한반도가 하나되어 포효할 때입니다.

방북취재 성사를 위한 전대기련 운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합의서 이행!
제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외대학보 145

노동계와 연대 우려... 한총련을 없애라

정부, 총학생회장단 겸거령 발동 등 공안정국 조성

최근 김대중 정권이 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비롯한 민민운 진영에 대한 마구잡이식 불법 연행을 자행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4월초 한총련에 대한 김정권의 이직단체 규정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총학생회장단(경기련)까지 발동과 정권의 탄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29일(토) 현재까지, 이성근(임남대 부총학생회장, 25일 경선에 미흡한 협의로 불법연행, 구속), 이동원(아동대 총학생회장, 28일 경기련에서 보수단체에 의해 연행, 경인대 대학원 회장, 불법연행), 이수근(미성여대 총학생회장,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법연행, 구속), 이동원(아동대 총학생회장, 28일 경기련에서 보수단체에 의해 연행, 경인대 대학원 회장, 불법연행) 등 연행자 대부분은 한총련 대학원들이었다.

이 중 서강대 경영대 학생회장 정목근 등 몇몇 대학원들은 미흡한 협의가 없자 '이직단체 예비가입 음모'라는 새로운 죄명으로 불

구속 입건하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무리한 연행 수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탄압은 비단 대학원들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자행되고 있다. 동국대 조용신(식물과 93년 졸업)군 같이 출생일에도 불구하고, 97년 서남중현 문화국장 활동 관련 국보법 위반으로 불법연행되었으며, 한총련 지원단체인 이벤트 회사 '개구쟁이'의 전 구성원인 실무회원 등 9인도 불구 속 입건됐다. 특히 일반인생인 한양대 사회과 하영준군은 같은 통신 동호회 회원인 오동진(한국통신 대학원)과 함께 통신으로 윤리 글에 이직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사회기획

[자간 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노동자·실업자 대거 참가, 투쟁결의

고용안정·실업대책 보장 촉구

지난 5월 1일(금) 노동장을 맞아 전국민 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제10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대회와 정리해고 대상 및 고용안정 확보, 실업대책 촉구 집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실업자 등 2만여 명과 한국대학생연합회연합 산하 서문, 경기, 인천지역 대학생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108 주년을 맞는 세계노동절을 기념하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반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마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해체, 공정한 IMF 재협상을 강대통령 정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즉각 철회△노동절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지 및 고용안정 △정협 체결 등을 주장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단기노조와 연맹과 부당노동행위 균형 투쟁, 사업장 현안 투쟁, 임금 및 단체 협약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이가 반영되어지지 않게 경위 단위 노동자와 연맹별로 각각 투쟁에 들어가며 오는 16일 전국 동시나라발집회와 23일 부문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5월말~6월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5월말~6월초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이번 노동절 기념 대회는 크게 네가지·의의를 가졌다.

첫째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철폐와 고용안정 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균형 등의 핵심요구를 선포하고 노동장을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노동절 기념 대회를 기점으로 이 각 단위 노조와 연맹에서는 노동절 집회·행동·시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총파업 투쟁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민주노총 2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직적 결속을 다지면서 이후 투쟁의 사발점이 되어야겠다는 점이다. 이번 노동절 기념 대회를 기점으로 이 각 단위 노조와 연맹에서는 노동절 집회·행동·시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총파업 투쟁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미조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기업 부도 등으로 살기자기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주노총에서도 미조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을 보호하고 이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넷째로 사회사업단체들의 연대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단순히

그들인의 것이 아닌 전 민족의 문제이고 요구하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이후 법과 민법, 노동기본법, 기관 대회와 정리해고 대상 및 고용안정 확보, 실업대책 촉구 집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실업자 등 2만여 명과 한국대학생연합회연합 산하 서문, 경기, 인천지역 대학생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108 주년을 맞는 세계노동절을 기념하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반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마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해체, 공정한 IMF 재협상을 강대통령 정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즉각 철회△노동절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지 및 고용안정 △정협 체결 등을 주장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단기노조와 연맹과 부당노동행위 균형 투쟁, 사업장 현안 투쟁, 임금 및 단체 협약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이가 반영되어지지 않게 경위 단위 노동자와 연맹별로 각각 투쟁에 들어가며 오는 16일 전국 동시나라발집회와 23일 부문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5월말~6월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5월말~6월초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이번 노동절 기념 대회는 크게 네가지·의의를 가졌다.

첫째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철폐와 고용안정 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균형 등의 핵심요구를 선포하고 노동장을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노동절 기념 대회를 기점으로 이 각 단위 노조와 연맹에서는 노동절 집회·행동·시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총파업 투쟁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민주노총 2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직적 결속을 다지면서 이후 투쟁의 사발점이 되어야겠다는 점이다. 이번 노동절 기념 대회를 기점으로 이 각 단위 노조와 연맹에서는 노동절 집회·행동·시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총파업 투쟁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미조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기업 부도 등으로 살기자기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주노총에서도 미조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을 보호하고 이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넷째로 사회사업단체들의 연대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단순히

MAI, 초국적 기업에 국가를 넘긴다

국내 산업기반, 노동·환경·인권 파괴, 경제주권 상실 불러

'[자간 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90년 이후 각 나라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투자협정은, 거의 대부분이 투자 촉진이나 투자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WTO(세계무역기구)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이미 그 내부에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에서는 투자권리를 보다 발전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MAI(마이크로스토리지)로의 확대 계획에 이미 들어섰고,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는 이미 그 내부에 경우 경쟁력 있는 초국적기업에 의해 국내산업기반이 파괴되고, 노동자와 시민을 파괴될 것이다.

MAI는 초국적기업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투자와 이익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정으로 IMF(국제금융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달리

정부의 감독력을 갖지 못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은 조인될 경우 경쟁력 있는 초국적기업에 의해 국내산업기반이 파괴되고, 노동자와 시민을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70년대 후반까지는 선진국과 제3세계가 모여서 협의직접투자에 대한 수많은 조건과 통제가 존재했었다. 혜외

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지난 27,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이를 조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미국 등 각국 정부 사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조인은 일단 미뤄졌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 종교계, 청년운동 단체, 시민운동 단체 등 사회단체들을 충망이라면 경기·남부민족연대투쟁기구를 중심으로 MAI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협

정부는 차별화된 협정이다. 이 협정안에 '투자 기본 자본'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내국인 대우'와 '회제국' 조항은 정부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대우로 초국적 기업에게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많은 재정을 받을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판매, 구매는 '차별화된'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에 빠지는 행위는 금지되거나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혜외 투자기들은 이 변화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위해서 투자유치국

정부의 기본 법률과 정책은 수정되거나 혹

은 폐기되어야 한다. MAI는 이러한 변화를

기장 감독으로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협정인 것이다.

협상장에 있는 MAI의 대표적 조항과 예상되는 효과를 살펴보자.

첫째, MAI는 투자자(기업)와 '계약당사자

인정'과 같은 절대적 보장책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업이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해외로 뺏어 가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될 상황을 보여준다.

다섯째, MAI는 '점진적 철퇴(rollback clauses)' 조항과 '현상유지(staystill)'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점진적 철퇴' 조항에 따르면, 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국 기업의 법률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상유지' 조항에 의해, 앞으로는 어떤 개별국 기업도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 절차, 계획 등을 도입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MAI는 '투자'의 개념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 MAI에 제안하는 투자자의 자산'이다. 이 협정안에 '투자 기본 자본'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내국인 대우'와 '회제국' 조항은 정부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대우로 초국적 기업에게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많은 재정을 받을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판매, 구매는 '차별화된'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에 빠지는 행위는 금지되거나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혜외 투자기들은 이 변화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위해서 투자유치국

정부의 기본 법률과 정책은 수정되거나 혹

은 폐기되어야 한다. MAI는 이러한 변화를

기장 감독으로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협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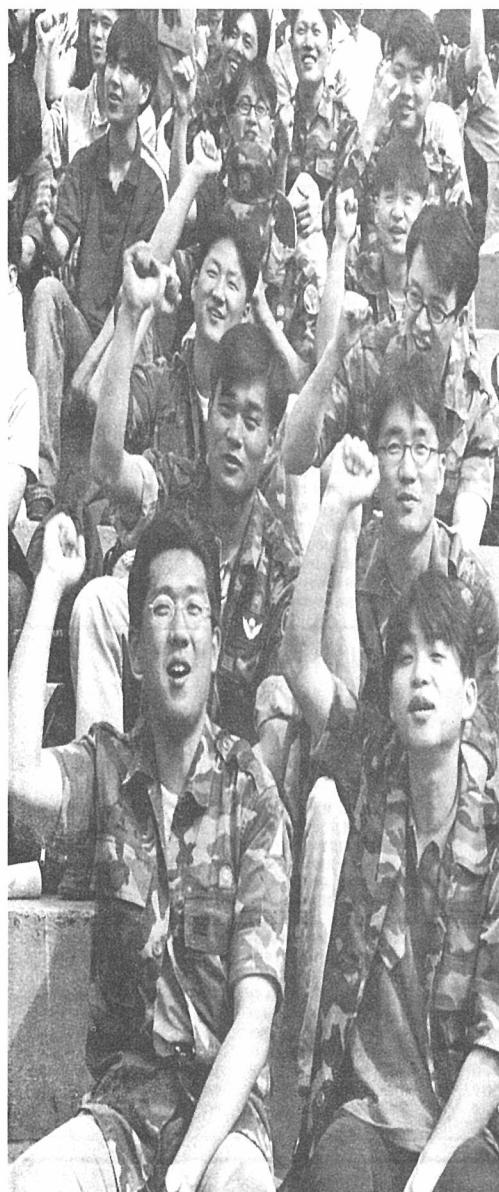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협정은 경제정책과 국제적 지원에서 이 기업은 제도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제기구·협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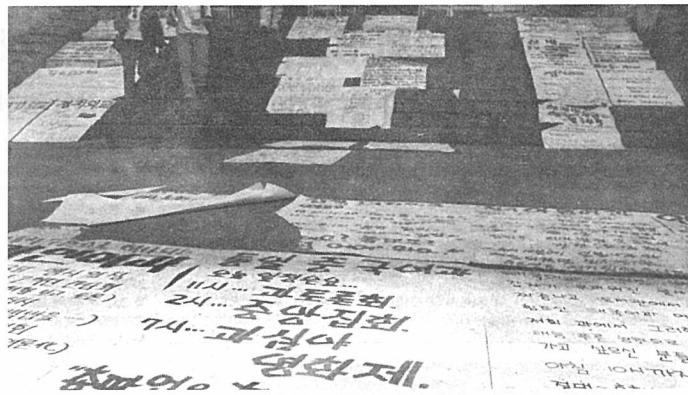
에 의해 완전히 변형하고 있다.



외대 민형답게

92년도에 우리가 뜻이든 외대발전투쟁! 후배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이제 예비역들이 나간다.

이보다 많을 수 없다
서울배움터 도서관 앞, 파업
기간동안 마련된 일정을 알
리는 대자보들이 빌더딜 틀
없이 많다.



제작 : 사진부

외대 꺼언기



즐거운 투쟁

파업은 길어지고, 매번 비슷한 노
천집회… 그러나 언제나 처음같은
마음으로 투쟁을 바리보자. 그 마
음을 풍선에 넣어 재단 투쟁 승리
를 향해 뛰어보자.



아외 수업?

서울배움터는 3주째 파업에 젊어들고 있다. 파업을
진행하면서 갈등도 있었다.

김작스런 수업거부·시월연기…

판단은 결국 자신이 한다.

왕산에서 비상
학대운영위가
열렸다
총파업을 제기한 총
학생회와 과회장을
의 열띤 토론.
기층으로부터의 지
지를 다지기 위해
총파업에 관한 공청
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들에게 드리는 대자보

수취 것을 끓팡 빼앗아 가겠다는 나쁜 사람들을 물아내기 위해

노천에서 수업을 거부하며 혹은 가역차게, 자정차게 옆심히 수업에 심하여 투쟁하고 있는 학생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 얘기가 많겠지요. 화가 나겠지요.

하지만 수취 대자보에 화풀이는 하지 맙시다. 대정부원 논쟁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아닌 비난은 아무리 너그려운 학생들도 삐면할 것입니다.

수취의 상대는 저기네 있는 나쁜 사람들의지 바로 옆의 친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자보를 불설때는 꼭 시름을 적어 주세요. 자기 의견을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는 건 그만큼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솔바른 대자보문화를 정착시키는 걸,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학내 올바른 대자보문화 수호를 위한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기자동